

쌍계루 서시 시나리오

서시 (박순)	<p>輪奐重新臥野僧 (윤환중신와야승) 아름답게 중수하여 스님 누웠는데 二仙文藻繼誰能 (이선문조계수능) 두 신선의 시문을 누가 이을 수 있으랴 山中芳草青春暮 (산중방초청춘모) 산중의 방초는 푸른 봄이 저물어가고 鏡裏羈愁白髮增 (경리기수백발증) 풍광 속 나그네 시름에 백발만 더하네 茶鼎竹林談久絕 (다정죽림담구절) 죽림의 차 솥 곁 담소는 오랜 전 끊겼지만 石床金澗夢猶澄 (석상금간몽유징) 금빛 시내 돌 침상의 꿈은 여전히 맑구나 岐峯東畔煙霞路 (기봉동반연하로) 기봉의 동쪽 가 안개 노을 자욱한 길을 惆悵浮生幾箇登 (추창부생기개등) 서글프다 덧없는 삶 몇 번이나 오르려나</p>
풀이	<p>이런 오래된 서시는 학위를 가진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느낀점을 토대 로 말씀드리겠습니다.</p> <p>輪奐重新臥野僧 (윤환중신와야승) 아름답게 중수하여 스님 누웠는데 쌍계루를 아름답게 재건축하고 스님이 열반 즉 이승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p> <p>二仙文藻繼誰能 (이선문조계수능) 두 신선의 시문을 누가 이을 수 있으랴 두 신선(각진국사, 청수스님)의 쌍계루를 복원한 깊은 뜻을 누가 이을 수 있을까 또는 두 신선이 시문을 지었는데 이 시문을 이어갈 수 있을까</p> <p>山中芳草青春暮 (산중방초청춘모) 산중의 방초는 푸른 봄이 저물어가고 작가의 젊은 시절 또는 전성기인 시절이 다 지나갔고</p> <p>鏡裏羈愁白髮增 (경리기수백발증) 풍광 속 나그네 시름에 백발만 더하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먹어가고 노인이 되었네</p> <p>茶鼎竹林談久絕 (다정죽림담구절) 죽림의 차 솥 곁 담소는 오랜 전 끊겼지만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눌 벗이 없지만 쓸쓸함과 적막함이 느껴집니다.</p> <p>石床金澗夢猶澄 (석상금간몽유징) 금빛 시내 돌 침상의 꿈은 여전히 맑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친구들이 다 떠나갔지만 자연을 여전히 아름답고, 비록 나도 나이 가 많이 들었지만 이루고자 함 또는 하고자 함이 눈에 선하구나 정도로 풀이됩니다.</p>

	<p>岐峯東畔煙霞路 (기봉동반연하로) 기봉의 동쪽 가 안개 노을 자욱한 길을 惆悵浮生幾箇登 (추창부생기개등) 서글프다 덧없는 삶 몇 번이나 오르려나 예전에 추억이 담긴 길 또는 자주 올라갔던 길을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 자주 올라가지 못해 슬프구나</p>
<p>해설</p>	<p>이 시는 작가가 정사를 돌보느라 나이가 들어 이제야 방문함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표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고 미루고, 바쁘다고 안하고... 그래서 주변에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문과 이 경치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탐방객에게 느낌을 말하게 유도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할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의 지정 이유처럼 자연을 보호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자연 훼손하지 않기 등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중요합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안 지키면 코로나 19처럼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소하지만 이런 소중한 것들은 여러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p>
<p>박순업적</p>	<p>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충주. 호 사암. 서경덕의 문인. 1553(명종 8) 친시문과에 장원, 전적, 수찬, 사인등을 지내. 1555년 사가독서하고 그 뒤 한산군수, 위의정, 좌의정에 역임. 1572(선조5)영의정에 올라 14년간 재직. 극심한 동서당쟁 속에서 이이, 성혼을 편에 섰다가 서인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 영평 백운산에 은거. 글씨는 송설체. 개성 화곡서원, 광주 월봉서원 등에 배향. 문집 『사암문집』</p>

<p>서시 (노수신)</p>	<p>不煩灰劫問胡僧 (불번회겁문호승) 번거롭게 겁회를 호승에게 물을 것 없나니 記蹟重新攷可能 (기적중신고가능) 중건의 사적을 기문으로 고찰할 수 있다네 海左宗儒餘事首 (해좌종유여사수) 동방의 높은 유자께서 여흥으로 시를 남겼고 河西後學嗣音增 (하서후학사음증) 후학 하서 선생이 시를 이어 값을 더했네 白年孤岐衰容槁 (백년고기쇠용고) 백년 외로운 갈림길에 쇠한 용모 메말랐건만 一夢雙溪爽氣澄 (일몽쌍계상기징) 쌍계루 하룻밤 꿈에 상쾌한 기운 맑구나 吳道應爲曠世感 (오도응위광세감) 우리 선비들 응당 격세지감을 느낄 터이니 此樓曾有幾人登 (차루증유기인등) 이 누각에 일찍이 몇 사람이나 올랐던가</p>
<p>풀이</p>	<p>不煩灰劫問胡僧 (불번회겁문호승) 번거롭게 겁회를 호승에게 물을 것 없나니 記蹟重新攷可能 (기적중신고가능) 중건의 사적을 기문으로 고찰할 수 있다네 쌍계루의 험난한 복원과정을 도량이 높은 스님에게 물을 것 없으니 여기 있는 시로 짐작해 볼 수 있다네</p> <p>海左宗儒餘事首 (해좌종유여사수) 동방의 높은 유자께서 여흥으로 시를 남겼고 河西後學嗣音增 (하서후학사음증) 후학 하서 선생이 시를 이어 값을 더했네 앞에 다녀간 덕망 높은 많은 선비들이 시를 남겼고 그중 한명인 하서 김인후 선생이 시를 지어 쌍계루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네</p> <p>白年孤岐衰容槁 (백년고기쇠용고) 백년 외로운 갈림길에 쇠한 용모 메말랐건만 一夢雙溪爽氣澄 (일몽쌍계상기징) 쌍계루 하룻밤 꿈에 상쾌한 기운 맑구나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흘러 힘없는 노인이 되었지만 쌍계루 주변의 맑은 정기를 받으니 몸과 마음이 상쾌하구나</p> <p>吳道應爲曠世感 (오도응위광세감) 우리 선비들 응당 격세지감을 느낄 터이니 此樓曾有幾人登 (차루증유기인등) 이 누각에 일찍이 몇 사람이나 올랐던가 우리 선비들이 많은 변화를 느낄 터이니 오랜 세월동안 이 누각에 오른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참고로 격세지감은 세대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4자성어입 니다.</p>
<p>해설</p>	<p>쌍계루의 자취를 잠시 언급을 하자면 쌍계루가 백양사에 처음 건립된 것은 고려시 대인 1350년으로 각진국사가 당시 정토사(지금의 백양사)를 중창하면서 건립된 것 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70년 대홍수에 휩쓸려 내려간 것을 청수스님이 1377년 복 원하였고 몇 차례의 재건축을 거치다가 6.25때 완전히 소실되었던 것을 1985년 복 원하였으며 현재의 건물은 2009년 다시 해체, 보수 한 것입니다. 이렇게 쌍계루는</p>

	<p>이런 많은 아픔의 시간과 함께한 누각입니다. 이런 인고의 시간을 겪은 후에 지금의 쌍계루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도 이런 인내의 시간을 거쳐 담금질을 여러 번 해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p> <p>白年孤岐衰容槁 (백년고기쇠용고) 백년 외로운 갈림길에 쇠한 용모 메말랐건만 一夢雙溪爽氣澄 (일몽쌍계상기징) 쌍계루 하룻밤 꿈에 상쾌한 기운 맑구나 이 구절에서 나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먹어 노인이 되었지만 자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기분 좋게 해 주는구나 즉 나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연은 변한 것이 없구나 로 안타까움을 표현한 구절입니다.</p> <p>오늘 이렇게 쌍계루에 올라 박순과 노수신의 시를 풀어보았습니다.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쌍계루는 오랜 세월동안 부서지고 재건축됨을 반복하며 아픈 세월을 이겨낸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는 약 240수 정도의 서시가 있습니다. 모두 쌍계루를 예찬하고 있지요. 그리고 차운이라 해서 구절 끝 한자(僧,能,增澄,登)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식이 높지 않고서는 쉽게 도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놀이 중에도 차운과 비슷한 놀이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끝말잇기 지금부터 끝말잇기 놀이를 하면 내려가겠습니다.</p>
<p>노수신 업적</p>	<p>1515(중종10) ~ 1590(선조23)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본관 광주. 이연경의 사위로 문하생이 되고 1543년 식년문과에 장원, 1544 시강원 사서가 되고 사가독서 함. 인종이 즉위하자 정언이 됨. 1547(명종2)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순천에 유배됨.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가중 처벌되어 진도로 이배 19년 동안 귀양살이 함. 1565년 다시 괴산으로 옮겼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풀려서 교리에 기용되어 대사간, 부제학, 대사헌, 이조판서, 대제학을 거쳐 1573(선조6)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이르렀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주자학파의 공격을 받았으며 휴정, 선수 등과도 교제하여 불교의 영향을 받기도 함. 충주의 팔봉성원, 상주의 도남서원 봉산서원, 괴산의 화암서원, 진도의 봉암사 등에 배향. 문집에 『소재집』</p>